



제 7 회 옥터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위원장	학교장
본 회 의 회 의 록			
○ 일시 :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14 : 40			
○ 장소 : 본교 1층 학운위 회의실			
○ 회 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안건심의 6. 폐회			
○ 의사일정(부의된 안건)			
1. 2023학년도 겨울방학 중 오후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2. 2024학년도 오후돌봄교실 단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선정계획(안)			
3. 2023학년도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4.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설 부서 및 강사 모집 계획(안)			
5. 2023학년도 옥터초등학교 회계 제6차 추가경정예산(안)			
6. 2023회계연도 3분기 발전기금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 보고(안)			
7. 2023학년도 옥터초 학교규칙 개정(안)			
8. 2023학년도 유치원 졸업앨범 수익자부담금 징수 계획(안)			
9. 겨울방학 행복한 울타리 수익자부담금 징수 계획(안)			
10. 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11. 2023 2학기 다문화 학생 꿈탄탄 방학특강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긴급안건)			
기타. 옥터초 환경개선 공사 안내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			
-간사 : 지금부터 제 28기 옥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제 7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 오늘 심의받을 안건 중 7번, 10번은 학생대표가 참석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고자 순서를 앞으로 조정하여 먼저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 오늘 첫 번째로 심의할 안건입니다. 심의안 번호 7번 2023학년도 옥터초 학교 규칙 개정 심의(안)를 상정합니다.	
-간사 : 다음은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학교장 : 학교장 인사 말씀			
-간사 :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위원장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터초등학교 학교 운영 위원 11명 중 과반수 이상인 6명이 참석하여 옥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성원이 되었기에 개의를 선포합니다.		-담당자(권O중) : 안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심의사항)	
-부위원장 :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23학년도 겨울방학 중 오후 돌봄교실 운영 계획 심의 안 및 긴급안건으로 1건이 추가되어 총(11) 건입니다.		-담당자(권O중) : 제안하는 이유는 최근 변화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반영해서 경기도 교육청이 제시한 표준안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 심의 순서는 담당자의 제안설명, 질의응답, 가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표준안에 맞추어서 본교의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정리하고자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규칙 재개정 위원회에서 이 시안을 마련하여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 의견 제안된 것이 없어서 지금 와 계신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교	

사 이렇게 중심으로 된 재개정위원회에서 최종 시안을 마련하였고 그 개정을 다음 주요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요 내용의 제8조 휴업일을 보시면 휴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하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안에서 이 개교기념일을 4월 1일 휴업일에서 제외하고 사계절 방학이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지우면서 4월 1일을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5번 6번처럼 학교장 재량 휴업일을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만들어서 4월 1일이 필요하면 4월 1일 재량 휴업일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5월 1일이 필요하면 5월 1일을 재량 휴업일로 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샌드위치 데이가 있으면 그때 재량 휴업일로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교육과정 설문을 통해서 재량 휴업일을 결정하고자 이번 개교기념일 4월 1일을 휴업일에서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시겠고 미리 사전에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이한 부분들은 없고요. 이 표준안에 맞추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 심의 안건번호 7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위원(김○화) : 제14조 출결 처리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은 상태에서 치료 기간을 말씀하신 거예요.

-담당자(권○중) : 구체적인 것은 학교폭력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고 관련된 부분은 학교폭력 규정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은 다르게 돼 있습니다.

-학부모위원(김○화) : 만약에 학교폭력이 일어났으면 학교폭력 위원회도 열리는 거고.

-담당자(권○중) : 네, 본교 규칙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죠.

-학부모위원(김○화) : 그냥 학교폭력 당했으니까 좀 쉬겠다 이런 건 안 되죠.

-담당자(권○중) : 가해자쪽에서는 안되고 당연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럴 때 출석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학부모위원(김○화) : 학교폭력이라는 게 그냥 애들끼리 놀이터에서 놀다가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원위원(박○진) : 그런 것은 되지 않고 이게 학교폭력의 사안으로 처리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을 때 학교폭

력의 정식 사안 처리가 되고 피해자라고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학교폭력에 이견 학교폭력 사안일 것 같으니까 다 인정해줘야 하면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결제 과정에 의해서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출결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학부모위원(김○화) : 밖에서 싸우고 그게 이제 부모 싸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런 학교폭력도 아닌 거죠.

-교원위원(박○진) : 만약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그것을 신고 접수를 했을 때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죠.

여기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저희가 즉시 분리 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일 이내 또는 7일까지도 즉시 보호하면서 피해자가 세 가지 종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일시 보호를 위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게 해달라 자기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가 그다음에 심리치료든 각종 다른 정신 치료든 뭔가 치료를 요청하는 거 그러면 이제 학교장이 승인해서 그 아이가 그 기간에 피해자라고 이미 피해자라는 전제는 학업 전담 기구에서 조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고가 된 이후 그러니까 경찰서에 신고해서 학교 경찰관이 학교로 연락을 오건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신고자가 받았으면 접수를 바로 하면 즉시 이 조치가 취해지거든요.

그럴 때 가해 학생이나 가해 관련 학생이나 피해 관련 학생인데 피해 관련 학생으로 신고되신 분이 이렇게 요청했을 경우는 말씀 아까 드린 바와 같이 일시 중지 출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요청해서 일시 보호 조치를 취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승인을 하고 그사이에는 학교에 오지 않으면 그 기간에는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위원장 :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안건번호 7번 2023학년도 옥터초 학교 규칙 개정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 다음으로 심의할 안건입니다. 심의안건번호 10번 **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자(박○진) : 안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의사항)

-담당자(박O진) : 올해 교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9월에 교육부로부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라는 게 내려왔습니다.

그것들을 적용해서 학교 규칙을 바꿔야 하는데 방금 하였던 학교 규칙 부분이 있고 학교 규칙은 학교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그 아래에 학생 생활 인권 규정은 학생 선도랑 학생 생활에 관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맡아서 개정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그동안 사실상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마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우리 학교 규칙에다가 적용하면서 학교에서 논의해서 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한 거고 내용을 보시면은 뒤쪽에 이미 보셨겠지만, 저희 생활지도의 방식 2절에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학생 물품 분리 방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업에 방해되는 학생들을 밖에 내보내거나 좀 심한 경우에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 담임이 아닌 다른 분들이 데려가서 따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항목이고요.

물품 분리도 이제 좀 위험한 물건이나 학교에 가지고 오면 안 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으로부터 옛날 말로 하면 압수죠. 압수해서 부모님이 오시면 돌려 주거나 폐기를 원하시면 폐기하거나 이런 근거 항목들을 저희가 마련을 한 그거고 그전까지는 우리 생활교육 위원회라고 해서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따로 있었고 또 학생자치위원회 규정도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하면서 합친 내용이라서 내용이 좀 깁니다.

이번에 학생들 의견을 주로 묻는 거는 이런 징계나 수업 시간에 학생들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학생들 의견을 꼭 청취하게 돼 있고 학생들은 따로 이 안에 대해서 크게 의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홈페이지랑 안내장으로 의견 청취를 했거든요.

학부모님들은 크게 의견이 없으셨고 교원 의견 중에 이것마저도 안 하고 버티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학생이 좀 심한 경우에 부모님들이 오셔서 데려가기로 했는데 부모님들이 바빠서 못 간다고 하고 학생도 이렇게 안 나간다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제 그것을 거부하면 생활교육위원회와 교권위원회에 이제 회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존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에 그 부분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장 :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 생활인권 규정상 그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재정적인 측면이 아마 이거 제3장 잠깐만 봐주시면 학부모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하고 우리 학생들도 당시의 의견 만들 때 같이 참여했던 학생들이데 그 생각을 조금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서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교육 3장에 보면 저희가 생활 지도하는 것을 예전에는 그냥 상담 중심으로만 하고 이제 주의 정도 수준이었다면 뒤에 제2절에 있는 방식을 조금 더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언하다가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주의 훈육까지 하고 나중에는 훈계까지 할 수 있도록 제20조 훈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품격 과정에서 이 15조에 제8조 8항을 보시면 이제 옆에 보시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분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교실 바깥의 장소와 또는 정규시간 외에 특정 장소를 분리하는데

1일 2회 이상 분리하였는데도 이게 지도가 안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하느냐? 그냥 부모님께 보내느냐? 논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냥 보내야 하느냐 그냥 이렇게 제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보호자에게 인계 요청을 하여서 가정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데려가서 약간의 아이들의 학습권도 중요하니까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도 중요하니까 이 아이를 가정 학습으로 데리고 가주시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게 이제 거부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교육의 교보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저희가 조항을 만든 부분이 이번에 저희의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핸드폰도 아이들한테 가져오는데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정보통신에 관련된 권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남한테 피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책임의 원칙을 좀 적용해서 아이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지점들을 저희가 12조, 13조, 14조에다가 계속 연이어서 좀 담았고 만약에 핸드폰이 삐삐삐 울려요.

수업 시간에 엄마하고 통화를 해야 하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정했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상황이 왜냐면 생활지도에 의해서 저희가 휴대해야 할 거 휴대하지 말아야 할 거를 명확하게 하고 만약에 그때 걸렸을 때는 어디에다가 일차적으로 보관하고 어디에다가 몇 차에 걸리면 어디다 보관하고 이런 것들을

좀 규정을 지어놔던 게 이번에 생활 규정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자(박O진) :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분리 보관 규정 1이 이제 가장 가벼운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이 전화벨이 울려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회 차는 처음에는 주의를 주고요.

근데 주의와 함께 이제 2회 차 또 올리면 그러면 선생님이 가져가서 보관할 수 있어 이렇게 일단 한번 얘기를 하고 그래도 학생이 이걸 끄지 않고 버틴다.

그래서 3회 차면은 2회 경고를 했음을 밝히고 저희가 가져가서 꺼서 보관하고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1항에 해당하는 것들은 사실 좀 가벼운 물건이거나 핸드폰 같은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수업 종료 후에 반환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항이나 3항 4항은 조금 심한 물건들 좀 위험한 물건들이나 학생이 가지고 오면 안 되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부모님이 받아 가시도록 그렇게 처리할 거고 보관하는 물건은 저희가 대장을 작성해서 안전한 곳 캐비닛 같은 곳에 보관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학부모위원(신O정) :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쭙볼 게 많았는데 앞에 말씀을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이제 교권이 조금 강화되는 거에 지금보다 솔직히 저 개인적인 입장은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긴 한데 일단은 1차로 강화된 게 이제 수업에 방해가 되면 복도나 이렇게 내보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담당자(박O진) : 저희는 복도는 뺐습니다. 복도에 내보냈다가 애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어서... 막 돌아다닐 수 있어서.

-학부모위원(신O정) :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켰는데 그게 부모가 솔직히 동의 안 하는 부모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강제로 할 바로 그 상황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좀 고충이 있으실 것 같고 이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핸드폰을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전에 이렇게 바꾸니가 있어요.

-담당자(박O진) : 네 그런 학교도 있어요.

-학부모위원(신O정) : 지금 초등학교는 저학년 애들은 솔직히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긴 하지만 보통 가방에 안에 넣어두고 사용을 안 하는데 고학년 애들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학년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걷는 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담당자(박O진) : 걷는 것도 이제 부작용이 많아서 이걸 걷어놔다가 분실될 때 선생님들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부모위원(신O정) : 선생님 책상 앞에 수업 시작할 때 넣어놔다가 쉬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사용을 한다거나

-담당자(박O진) : 그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또 핸드폰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진 수업을 한다든가 또 그럴 때도 있고 해서 일단 우리 학교는 지금 핸드폰으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학생들이 큰 문제는 없고 자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 몇 학생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막 일괄적으로 걷는 것까지는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부모위원(김O화) : 근데 이 내용 자체는 모든 학부모님이 좀 제대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좀 관심 있게 왜냐면 진짜 내 아이가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전화를 받고 선생님이랑 또 싸울 수는 없잖아요.

내 아이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내 아이가 어떻게 방해를 했는데요라고 그러면 학교 측에서도 난처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괜히 화내고 욕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학부모위원(신O정) : 이 개정된 내용이 부모님들한테도 종이로 전달 되는 건가요?

-담당자(박O진) : 네네 개정되면 공포되면서 안내장이랑 나가게 되는데 내용이 너무 커서 종이 안내장으로 가기 힘들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학교 홈페이지 보시라는 내용과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서 핵심적인 표 같은 것으로 안내장이 나가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면 보셔야 하는데...

-학부모위원(신O정) : 종이로 주요 내용만 정리해서 나가면 좋겠어요.

-학부모위원(김O화) : 아이들한테 어머님께 꼭 보여주라고 아빠한테 꼭 보여주라고 해서 이 면지로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엠스쿨도 많이 안 보시거든요. 진짜 알림장에 뭐가 올라오는지 정작 그것조차도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장 : 학생들의 의견은 어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잘 알았으면 좋겠고 규정이라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균형 있게 책임도 또는 그에 대한 권리도 지켜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건데 지금 학부모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잘 알고 부모님들이 잘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생들 : 침묵

-담당자(박O진) : 협의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몇 번 봤거든요.

오늘 참석한 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학생들 의견을 꼭 청취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불렀고요. 그거에 관한

얘기만 지금 준비해와서 애들이...

-학부모위원(신○정) : 이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런 종이 오면 꺼내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이 가방을 절대 잘 신경 쓰지 않아요. 물통도 알아서 스스로 알림장도 네가 스스로 꺼내 근데 이게 책가방을 아이 거를 매일 들여다보는 부모라면 그래도 잠깐이라도 보시겠지 아이가 얘기 안 해도

-학부모위원(김○화) : 그러니까 지나번에 종이(우유급식 설문지)로 선생님이 꼭 부모님 보여드리라고 하니까 저희 아이도 엄마 가방에 뭐 있는데 그거 선생님 꼭 내일까지 해오래 이래서 저도 아이가 꺼내는 걸 봤거든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세계 이렇게 말해 주시면 아이들도 집에 가서 그걸 보여드리지 않을까요?

-학교장 :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규정들은 이제 일반 많은 학교에서도 아이들 뒤편에다가 핵심적인 거 아이들도 알아야 하니까 규정을 이렇게 보기 쉽게 해서 뒤에 부착해서 부착물로도 만들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를 홈페이지만 게시하니까 정보의 비대칭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안 보시는 분이 있어서 이걸 인쇄해서 보시도록 하고 본 거를 여기 밑에다가 확인을 받아오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부분도 저도 들었는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알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 총회 때도 저희가 이런 교육과정 설명회 할 때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생활안전 담당 부장님이나 선생님께서 설명도 해드릴 거고 또 이 관련된 자료를 또 하겠습니다.

-학교장 : 학생들이 가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담당자(박○진) : 준비된 거 누가 하기로 했지? 준비한 그거 아니었어. 후배들한테 그냥 맡겼구나

-학생들 : 웃음

-담당자(박○진) :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죠. 네 찬성하는 입장에서 다른 의견 있으세요?

-학생들 : 의견 없습니다.

-담당자(박○진) : 이런 자리까지 왔는데 의견이 없으면 좀... 아까 회의하는 거 아니었어요?

-교원위원(노○래) : 이런 개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아까 교장 선생님이랑 다른 학부모님들 말씀처럼 학생들도 아는 게 중요해서 저희 학생 전교 임원 자치회 측면에서도 학생들 임원들끼리라도 이렇게 한번 말하는 그런 기회 있으면 어때요? 임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설명해 주든지 전교 임원들이 이렇게 같이 바뀌게 되었다고

-담당자(박○진) : 12월 20일자로 전교 임원이 바뀌는 거라 이 학생들은 이제 회의가 더 이상 없고 내년도에 하는 학생들이 5학년이 이제 6학년 되면 좀 이끌어 나

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 심의 안건번호 10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안건번호 10번 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에 대한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 다음으로 심의할 안건입니다. 심의안건번호 1번 2023학년도 겨울방학 중 오후돌봄교실 운영 계획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자(백○화) : 안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의사항)

-담당자(백○화) : 2023학년도 겨울방학 중 오후 돌봄교실 운영 계획 제안자 초등보육 전담사 백경화입니다.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돌봄교실은 겨울방학 중에도 지속해서 운영되는데요. 대상은 현재 오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운영 기간은 2024년 1월 15일(월) ~ 2월 27일(화) 총 30일간 운영이 됩니다. 돌봄교실 겨울방학 기간은 사전에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겨울방학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요. 의견 수렴 결과 가장 많이 희망하시는 기간으로 24년 1월 8일 ~ 1월 12일 겨울방학 기간으로 5일간 미운영 되겠습니다. 총인원 14명 중 9명만 방학 중 참여를 희망하였고, 참여 아동의 수요조사 결과만 적용하였습니다. 새 학년 준비기간은 24년 2월 28일 ~ 2월 29일 2일간 미운영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08:50~15:30분까지이고, 운영장소는 원래 돌봄교실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만 다음 주부터 학교 외벽 공사 및 창호 교체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방학 기간 겨울철 난방 및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온누리관 2층 학부모 상주실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겨울방학 중 급 간식 제공계획으로는 간식은 매식으로 일 단가 1,500원*30일간 운영으로 수익자 부담 45,000원으로 운영되고, 급식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본교는 돌봄교실 1학급 운영으로 참여 인원이 부족하여 급식업체 제공 조건 20명 이상이 되지 않아 가정에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방학 중 단체 활동 프로그램은 매일 2개 이상 운영이 되도록 교육청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학기 중 결손 수업 및 보충 수업을 1시간 추가하여 매일 2시간 프로그램을 무상제공하고 강사

비는 시간당 3만 원으로 월, 화는 창의 미술, 수요일은 클레이아트, 금요일은 컵 타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방학 중 안전관리 계획으로는 학교 내 다양한 인력 및 인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협조를 받아 교내외 수시순찰을 강화하고 급 간식 안전 손 씻기 지도, 음식물 보관관리 철저히 하고, 귀가 안전, 겨울철 놀이, 화재 안전교육 지도 및 방학 중 공사로 인해 등하교 안전 지도를 철저히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부모위원(김○화) : 외벽 공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내일부터 저쪽으로 가는 건가요?

-담당자(백○화) : 아니요. 방학 기간에만 이동 운영됩니다.

-학부모위원(김○화) : 네 그러면 공사를 해도 방학 때까지는 여기서 있고

-담당자(백○화) : 네

-학부모위원(김○화) : 그러면 만약에 방학 동안 돌봄 서비스를 하는 아이들은 하교할 때 선생님이 인솔해서 하교를 하나요?

-담당자(백○화) : 1층까지 인솔하에 내려와서 학부모님들과 하교하게 될 것 같아요.

-학부모위원(신○정) : 보통 선생님 한 분당 몇 명이 정원인가요?

-담당자(백○화) : 저희가 학급 정원이 원래 20명이고요. 최대 22명까지 편성이 됩니다.

-학부모위원(신○정) : 이번에 신청한 아이들이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담당자(백○화) : 작년에 그러니까 두 반으로 줄면서 신청 인원이 줄었어요.

제작년에는 좀 더 오버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학부모위원(신○정) : 2학년까지만 대상인가요?

-담당자(백○화) : 1~2학년 대상이고요. 다함께꿈터가 지금 3학년 이상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위원(김○화) : 돌봄 서비스는 3학년까지는 안 되는 건가요?

-담당자(백○화) : 저희가 미달했을 때는 일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가능한 할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 전학을 오는 1~2학년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가 없어서요.

-학부모위원(김○화) : 작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또 너무 없어서

-담당자(백○화) : 저희가 인원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학교도 비슷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학교장 : 우리 학교가 돌봄교실이 필요해요? 옆에 안심 학교가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당자(백○화) : 그쪽이 저희보다는 운영시간이 좀 길고 월 10만 원인가 이렇게 내고 나서 저녁 돌봄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시간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비교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담당자(박○진) : 저녁 준다고 저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학부모위원(김○화) : 저쪽으로 지금 가는 아이들은 학기 중에는 필요 없는데 방학 동안 지금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안 맞아서서 그래서 안심 학교로 많이 빠신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안심 학교보다 학교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학교장 : 더 나아요.

-학부모위원(김○화) : 네.

-담당자(백○화) : 그러니까 어머님들 좀 우선시하는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끝나고 안전하게 바로 이동하느냐 아니면 아직 저학년이기도 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학교장 : 학생도 점점 줄고 지금 유치원도 폐원하는 학교도 많아요. 저희 수요는 1~2학년 대상만 갖고는 수요가 점점 없어지고 방학 때도 9명밖에 참여를 안 하는데 굳이 학교에서 돌봄 체제를 가져가야 할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장점을 만약에 살리려면 어떻게 살리게 좋을지 이런 게 사실은 고민이거든요.

-학부모위원(김○화) : 학부모들이 이 돌봄 서비스를 많이 몰라요.

-학교장 : 몰라요?

-학부모위원(김○화) : 돌봄에서 뭘 하는지조차 몰라요. 그냥 저희 아이들이 돌봄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도 개네 그럼 학교에서 6시까지 뭐 해? 학교 돌봄 서비스를 가면 거기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 매일매일

-학부모위원(신○정) : 그걸 다 모르세요.

-학교장 : 근데 방과 후 프로그램은 저희가 공개강좌를 해서 오셔서 보시잖아요. 돌봄은 그런걸 안 하시나요?

-담당자(백○화) : 예 저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 계획 올 때 그런 그거에 관한 내용은 또 기록된 게 없어서 저희는 이제 어쨌든 그 운영 계획에 근거해서 운영하다 보니까요.

-학부모위원(김○화) : 돌봄에서 애들이 이제 뭘 만들어서 오면 돌봄은 안 다니는 아이 엄마들이 우리 애는 왜 안 만들었는데 재내는 만들지 이런 식으로... 아이엠스쿨만 보셔도 되거든요.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이제 새 학기에 다 올라오잖아요. 돌봄 서비스한다 뭐 한다 어떤 운영 체계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들이 정작 안 넣어놓고 나서 나도 돌봄에 넣을 걸 아쉬워하는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담당자(백○화) : 지금 참여하신 학부모님들 이렇게 소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엠스쿨에도 제가 월간 계획 이런 거 넣어드리지만 단톡방에도 좀 넣어드리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교원위원(박○진) : 1학년들 이제 예비 소집 올 때 안 내장 주면서 한 명 한 명 다 안내를 해줘요.

해 주는데 이분들이 비교해보고 저녁을 주니까 저쪽으로 이번에는 가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학부모위원(신○정) : 방학 때 또 점심 저녁까지 주고 비용적으로도 장점도 있고 여기는 맛별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저녁 운영시간이 길어서 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녁을 주든 안 주든 여기도 만학에 시간이 길면 솔직히 학교죠.

학교 안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오는 거니까. 근데 저기는 이제 일단 시간적 장점 그리고 방학에 점심 저녁을 주는 그 장점이 좀 큰 것 같고

-학부모위원(김○화) : 그럼에도 저는 이 돌봄 서비스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좋아요.

-학부모위원(신○정) : 안심 학교 가는 길도 너무 위험하고 인도가 아예 없어요.

저희 아이들도 차도로 걸어 다녔거든요.

-학교장 : 방학 동안에 1월 8일부터 5일간 미운영할 동안에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담당자(백○화) : 저희는 사전에 학부모님들한테 수요 조사해서 이렇게 진행했거든요.

-학교장 : 예를 들어서 안 오는 아이들은 지역 연계를 시켜주거나 안내를 해주거나 선생님이 연계해 주시거든요.

이걸로 구분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방학 동안에 이것을 미운영하나 운영하느냐도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아이들을 그냥 돌봄을 위해서 방학 동안에도 보내려고 했는데 왜 방학까지 있냐 이제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민원이 없으신 편이에요. 학부모 민원이

-학부모위원(김○화) : 이 민원이 없는 게 이게 선생님도 쉬는 시간이 있으셔야 하니까 돌봄을 하는 엄마들끼리의 단톡방이 또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부모님이 당연히 계시죠.

그 대신 만학에 일주일을 쉰다는 가정하에 이들은 이 엄마가 보고 이들은 이 엄마가 보고 이들은 이 엄마가 나눠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원이 없는 거예요.

-교원위원들 : 잘하고 계셨네요. (전체)

-학부모위원(김○화) : 왜냐하면 공동육아가 필요하거든요. 공동육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만학에 일이 있을 경우 내가 만학에 애가 둘이 있고 여기도 애가 둘 있는데 넷을 봐야 하는 거잖아요.

혼자 그러면 저녁에는 고마우니까 또 밥 한 끼 먹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편안하게 쉬시는 거고 저희도 이 기간에는 그냥 서로 부담 없이 불일을 볼 수 있으니 서로 좋은 거죠.

-학교장 : 그럼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거를 이미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안내해서 미리 대처를 좀 해 주시라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학부모위원(김○화) : 돌봄에 있는 아기들도 다 알고 엄마들이 알고 서로 찾아다가 이제 보내주고 서로 찾아서 내가 오늘 뭐 일이 있어 그럼 내가 선생한테 미리 말씀해 놓을게 그러면 내가 데려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담당자(백○화) : 어머니가 제일 많이 도와주세요.

-부위원장 :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안전번호 1번 2023학년도 겨울방학 중 오후 돌봄교실 운영 계획 심의(안)에 대한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 다음으로 심의할 안건입니다. 심의안건번호 2번 2024 오후돌봄교실 단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선정계획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자(백○화) : 안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의사항)

-담당자(백○화) : 오후돌봄교실은 단체활동 프로그램을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학기중 1개, 방학중 2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요. 교육청 지원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수익자 부담 없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운영시간과 강사비 관련 내용은 마지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단체활동 운영 부서선정으로는 23학년에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부서를 선정하는데, 기존 4개 부서 창의미술, 키즈댄스, 클레이아트, 보드게임은 90% 내외의 높은 만족도를 충족함으로 부서 변동 없이 운영하고, 컵타 부서는 71%

결과가 나왔으나 학생들의 참여 호응도가 많이 떨어지고 일부 학생은 참여에 대한 어려움으로 집중을 못 하는 학생들이 다수 발생 돼서 24년도 부서선정에서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대체 신규부서로는 신체활동 위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 체육부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서를 선정하되 본교는 돌봄교실 1학급 운영으로 강사 지원이 많지 않아서 강사 지원상황에 따라서 운영 부서가 변경될 수 있고, 모집 분야 미달 시 재공고를 실시하나 추가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된 분야만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사 채용 기간은 24년 돌봄 해당 첫 수업일부터 25년 수업 종료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강사를 채용하고요~ 강사는 연간 만족도 조사해서 만족도 평가 60% 미만인 강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80% 이상인 강사는 재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 단 총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공모 절차를 다시 실시합니다. 재계약이 결정된 프로그램은 모집 공고를 제외할 수 있고, 계약 시마다 범죄전력조회 및 취업제한 사유를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강사비 책정 관련으로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현행대로 40분을 기준으로 1시간 진행하고요~ 강사비는 시간당 3만 원으로 심의안을 올렸는데요~

최근에 교육청 담당자가 내년 강사비 지원액이 35,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예산이 배부될 계획이니 강사선정에 참고하라는 안내 쪽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공문은 2월 중에 시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학년도 단체활동 강사비는 35,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공문은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 강사비 관련해서는 추후 교육청 지원예산에 맞춰서 책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별도 심의 없이 강사선정 진행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종 금액은 24년도에 저희가 돌봄교실 연간 운용 계획에 기록을 해서 최종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 심의 안전번호 4번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강사비 35,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별도 심의 없이 강사선정 진행에 동의하시죠?

-위원들 : 동의합니다. (전체)

-부위원장 :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안전번호 2번 2024 오후 돌봄교실 단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선정계획에 대한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 다음으로 심의할 안전입니다. 심의안전번호 3번 2023학년도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자(정0영) : 안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의사항)

-담당자(정0영) : 겨울방학 중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 설명하겠습니다.

겨울방학 중 방과 후 학교는 방학 기간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주간이 정식 운영 기간이고요.

그다음 혹시 중간에 빠져서 보강이 필요한 수업이 있으면 그다음 주에 22일 주에 보강이 필요한 수업들만 보강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기 중이랑 똑같이 하고요.

장소만 공사 때문에 좀 변경된 점이 있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운영 계획 첫 페이지에 보면 운영 기간 및 장소 거기에 장소 나와 있는데요.

방송 댄스랑 축구는 온누리관 3층 체육관을 이용하고 요리탐구랑 미술은 2층 급식실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온누리관은 공사장은 무관하여서 수업할 수 있어서 우선 이렇게 잡아두었는데 일단은 수업을 다 할 생각이고 만약 피치 못할 뭔가 알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혹시나 수업할 후 없게 된다면 조기 종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우선 상황에 따라 조기 종강 가능하다는 문구는 일단 넣어두었습니다.

그 외에는 교내의 학생이 있어서 경찰서 지구대에 요청해서 수시순찰 동선에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등등 안전교육 안전관리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장 : 혹시 요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불을 써야 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담당자(정0영) : 원래 할 때 저희가 과학실에서 했었기 때문에 과학실에서는 불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그릇기 때문에 아예 핑거푸드만 하게 돼 있어서요.

그런 것들 사용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하는 음식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장 : 저희가 이제 항상 각각의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할 때는 해당하는 교실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소화기가 터져서 바닥에 막 뿌리고 갔는데 그거를 방과 후 강사분은 대충 치우고 가시고 그 담당자 선생님은 교실 관리가 안

되어 있으니 또 그걸 치우시고 이러니까 되게 서로 간에 갈등이 좀 생기는 문제가 있고 그럼 청소까지 해야 하나 어디까지 해야 돼 경계가 있는데 지금 이게 교실이 온누리관 쪽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럼 관리 체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담당자(정O영) :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오기 전에 방과 후 강사들에게 철저하게 청소까지 다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왔습니다.

방과 후 강사들이 정리까지 하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장 : 문 닫고 불 끄고 그런 것까지요?

-담당자(정O영) : 문 닫는 건 이제 당직 기사님이 마지막에는 봐주셔야겠지만 일단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하고 온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 심의 안전번호 3번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위원(신O정) : 수업하는 곳이 요리하는 곳이 아니라 급식실인가요?

-담당자(정O영) : 네, 식당입니다.

-부위원장 :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안전번호 3번 2023학년도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 다음으로 심의할 안전입니다. 심의안전번호 4번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설 부서 및 강사 모집 계획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자(정O영) : 안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의사항)

-담당자(정O영) : 내년도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해서 아이엠스쿨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57분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 거부 누르신 분들 빼고 내년도 방과 후 학교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로만 해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표에 보면 우선 올해 기존 운영했던 거는 방송댄스 축구 미술 요리탐구 이렇게 4개 부서 운영했었는데요.

이 중에 요리탐구는 개설요청 수가 5명이어서 일단 객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뺐고요.

그래서 6표 이상 나온 기존 3개 부서들을 그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설 부서도 수요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4개 부서에 대해서 조사받았을 때 똑같이 축구를 기준으로 6표 이상 나온 부서들인 마술 큐브 컴퓨터 세가지 부서를 추가로 일단 신규 개설해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강 신청을 받으면 매번 많이 달라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수요조사에 따라서 강사 모집을 하고 수강 신청을 받아보고 수강인원이 10인 이하면 강사 의사를 물어보고 폐강 또는 유지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 요리 수업이 폐강이에요. 없어요?

-담당자(정O영) : 5표밖에 일단 안 나와서요.

-학부모위원(신O정) : 요리가 원래는 많았는데 점점 줄더라고요.

-학교장 : 지금 수강 중인 학생은 몇 명인가요?

-담당자(정O영) : 지금은 저학년 고학년 다 합치면 그래도 30명 가까이하고 있기는 한데요.

-학교장 : 30명 가까이하는데 수요조사가 260명 중에 응답자가 57명밖에 안 되고 현재 30명 하는 아이들도 있고 만족도도 높다면서요.

-담당자(정O영) : 만족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학교장 : 수요자 결과가 5표 나왔다고 폐지를 해요?

-담당자(정O영) :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설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학부모위원(신O정) : 개인적으로 지금 참여하는 아이들만 아이들 부모님께 따로 수강하실 건지 한 번만 더 여쭙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미달이 돼서 수강인원이 적은 부서면은 몰라도 일단 지금 많이 수강하고 있고 수요조사에 참여를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수강하고 있는 부모님에게만이라도 수강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정O영) : 네 그러면 안내장을 아예 따로 만들어서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조사해보고 개설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면 별도의 심의 없이 부서개설 또는 강사 모집을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설 과목에 포함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 : 네

-학교장 : 신청자 고학년 말고 요리 교실의 분포가 저학년이면 이제 새로 들어오는 1학년에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요리 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추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자(정O영) : 주로 중저학년이 많아서요. 네 1~4학년 정도가 많습니다.

-학부모위원(김O화) : 새로 입학하시는 아이들의 엄마

말 들어보면 지금 우리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 애들 미술이랑 요리탐구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왜냐 하면 아이들이 원래 복지관에서 하던 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던 방과 후 프로그램 등으로 학원 대신 방과 후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저 복지관에서 지금 요리가 이제 안 되니까 학교에서 요리를 한다고 계속 한다고 하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학교장 :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거는 판을 좀 짜봐야 하는데 저희는 방과 후 쪽에서 하는 게 있고 저쪽에서 하는 거가 아닌 그러니까 저희도 갈 수 있지만, 오히려 이쪽에서 조금 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것들을 좀 열어 보고 스포츠클럽이라든가 각종 문화예술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방과 후 경우를 조금 확대하여 해석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나 좀 무료로 하든 수익자로 하든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 지금 협의하는 과정인데 요리 교실은 수강생이 좀 있는 상태여서 점점 줄어서 10명밖에 안 된다고 다섯 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렇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수요를 조금 더 확인해보고 결정하면 어떨까요?

-담당자(정O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획서 6개 부서에서 요리탐구 확인 후 포함 또는 미포함으로 위임해 주시면 6개 부서 또는 7개 부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위원(신O정) :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의 30명에 내년에 들어오는 부모는 아직 조사가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요리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다시 해서 하는 거로 하고,

-담당자(정O영) : 다시 조사해서 개설 요청 인원 6인 이상 나오면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부모위원(신O정) : 농구장을 새로 했는데 사실 농구는 4명밖에 신설 요청을 안 해서 아쉽습니다.

-학교장 : 대부분이 농구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아이들의 그 기술적인 측면이 잘 없으면 활용도가 낮아서 농구장은 새롭게 개편했고 또 스포츠클럽의 여러 가지 부서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신청하신 거에 보고 나면 수요가 얼마 안 나오면 강사님이 고려가 안 되니까 그때는 강사님이 선택으로 강좌 운영이 되는 거죠?

-담당자(정O영) : 네네 맞습니다.

-학교장 : 혹시 예술 체육 부장님은 농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방과 후 지역 연계라든가 아니면 학교 스포츠에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교원위원(노O래) : 농구가 아이들의 수요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 애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운동인데 조금

저학년이나 중학년이 하기에는 어려워요.

공이 농구대까지 안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그만큼 고학년들은 되게 좋아할 만한 운동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저희 문화예술 체육 운영하고 있는데 다 그렇지만 옥터초등학교 학생들이 접해본 게 많지 않고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해봐야 해요. 일단 해보지 않으면 다 모르니까 안 해요.

-학부모위원(김O화) : 농구공을 몰라서 발로 차더라고요.

-교원위원(박O진) : 농구가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축구는 그냥 바로 뽕뽕차면 되는데 농구는 이렇게 기술이 조금 있어야 하는데 기술을 하기까지 애들이 힘들죠.

-학교장 : 전에 학교에서는 이게 너무 인기 많아서 추천했거든요. 농구가

근데 체육관에 있는 농구대를 이용했어요. 바깥에도 있지만 이렇게 그 시설 때문에 그런지 추천했는데 이 학교는 농구장을 만들어 놔는데 하는 애들을 못 봤어요.

-학부모위원(신O정) : 여기 동네에 청년들이 와서 하고 아이들이 보기에는 골대가 너무 높아요.

-학부모위원(김O화) : 애들 입장에서 하는 건 농구장에서 피구를 하고 있죠.

-교원위원(노O래) : 현재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방과 후를 지금 희망 인원도 많지 않고 한데 바로 수익자 부담으로 농구를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저희 내년에 새로운 체육 선생님과 교육 과정상의 농구가 3, 4학년에 지금 4학년에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수업하고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있으면 스포츠클럽도 운영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부모위원(신O정)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안전번호 4번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설 부서 및 강사 모집 계획에 대한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 다음으로 심의할 안전입니다. 심의안전번호 5번 2023학년도 옥터초등학교 회계 제6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자(윤O아) : 안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의사항)

-담당자(윤0아) : 행정실장입니다.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 보시면 목적사업비 전입금 및 정산 후 반납액 등을 반영하여 예산액 증감 편성 및 수익자 부담 사업비를 실제 운영 규모로 현행화하였고요. 집행 완료한 사업비 잔액을 감액해서 필요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건전한 학교 회계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3번 예산 규모 보시겠습니다. 제6회 추경은 기정 예산 대비 금회 추경액은 마이너스 459만5천 원으로 총 12억 1,72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내역 총괄에 대한 예산은 다음 장에서 요약안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칸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이전 수입 목적사업비 항목입니다.

주로 첫 번째와 네 번째 칸은 학교 급식 지원 경비와 소규모 교육 환경개선 사업비는 이제 잔액을 감액한 내용이고요.

유아 학비 지원에 총 4건에 대해서 목적사업비가 지원되었고 그 지원 내역 목적에 맞게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칸에 수익자 부담 수입의 경우도 교직원 급식비와 방과 후 학교 활동비는 증액하였고요.

나머지 현장 체험학습 외의 건들은 잔액 미집행 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학교 기본 운영비 쪽은 세입 쪽은 변함이 없고요. 세출 쪽에서는 주로 잔액들을 많이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다 완료된 사업들을 감액한 경우가 많고요. 번호 중에 5번 과학 교과 활동비 조정 증액 그 부분은 증액하였고요. 11번쯤 보시면 학교 자율 과제 운영으로 진로 연계 교육 강사비 등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2번 학교 자율과제 운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비 등도 증액하였습니다.

15번에 도서관 장서 점검 및 독서기록장 구입비 등이 증액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감액된 것들을 모아서 새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치원 쪽도 보시면 28번에 방과 후 특수 강사비도 증액하였고 노후시설 수리비도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 기본 운영비는 증감액 해서 0원 되고요. 총 마이너스 459만 5천 원이 이번 추경 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 심의 안건번호 5번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부위원장 :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안건번호 5번 2023학년도 옥터초등학교 회계 제6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 다음으로 심의할 안건입니다. 심의안건번호 6번 2023회계연도 3분기 발전기금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 보고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자(윤0아) : 안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의사항)

-담당자(윤0아) : 이번 3분기 발전기금 집행 계획은 3번 보고 사항입니다.

집행계획은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에 맞는 학생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4번 집행 내역을 보시면 3분기 2024년 9월부터 11월 간 집행 내역에 대한 것인데요.

접수를 보시면 9월 10월 11월 매달 한 번씩 시흥 비즈니스 동행에서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셔서 총 90만 원의 접수 내역이 있습니다.

아래 칸 집행 내역을 보시면 11월 24일에 2023학년도 학생 교육복지 지원 물품 구입으로 즉석식품 의류 및 신발류 구입을 해서 161만 410원 지출하였고요.

11월 30일에 학생 교육복지 지원 물품 구입으로 김장 나눔 김치통을 2만 5천 원어치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총 163만 5,410원이 되겠습니다.

3분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장 : 11월 24일에 지원 물품을 몇 명을 지원하는 거예요?

-교원위원(박0진) : 24일 저희 1학과 마찬가지로 9명이었습니다.

9명이고 1학기 때는 여름옷이라서 가격이 조금 싸서 그때 20만 원 내로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 25만 원으로 증액해서 겨울옷으로 지원했습니다.

-학교장 : 12월 30일 김장 식품을 제공했는데 이것도 몇 명 지원했나요?

-교원위원(박0진) : 김치를 저희가 10개 받았거든요. 여기서 김치 두 포기씩 왔는데 처음에 5통은 거기서 지

원해 주실 때 통까지 같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신청한 인원이 조금 있어서 더 주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통은 미처 준비를 못 하셔서 통은 저희가 따로 구입을 해서 담아서 뒀습니다.

-학교장 : 11월 15일에 이후에 발전기금 접수를 계속 그분이 30만 원씩 하시게 되나요?

-담당자(윤0아) : 이분이 내년 6월까지 총 그전부터 2년간 해 주시기로 하고서는 매달 30만 원씩 주고 계십니다. 이 협회에서 주시는 겁니다. 시흥 비즈니스 동행이라고 사업자들이 모여서 하는 협회인데요.

거기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학교장 : 차후에는 다시 논의하는 건가요?

-담당자(윤0아) :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아직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학부모위원(신0정) : 원하는 학부모들이 학교 지원 그러니까 이게 기부로 돈 걸어서 애 이거 해주자 이게 아니라 그런 건 안 되잖아요.

-학부모위원(김0화) : 누구 아이를 지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서 이 아이들한테 좀 써주세요 하려면 꼭 무슨 단체가 있어야 그 명목으로 기부를 하는건지?

-담당자(윤0아) : 자발적인 기부여야 되는데 학부모회에서 이렇게 건자 해서 그렇게 되게끔 하는 건 안 되고요.

-학부모위원(김0화) :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분들은 조금씩 하고 싶는데 이게 학교 일이 다 보니까 내가 선뜻 나서도 되나 이게 학교니까 단체가 있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학교장 : 발전기금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금처럼 학부모회라든가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또는 회비를 거둬서 쓰시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발전기금의 운용에 관련된 핵심적인 장은 운영위원회장님이세요. 맞죠? 학교에서 접수하고 이렇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고 또 받고 해서 괜찮습니다.

-교원위원(박0진) : 만약에 누가 이렇게 기부를 하신다고 하시면 학교에 문의하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윤0아) : 기탁서 작성하시고 입금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 심의 안전번호 6번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안전번호 6번 2023회계연도 3분기 발전기금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 보고에 대한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자(윤0아) : 그리고 제가 안전 말고 다른 추가 사항으로 별지로 드린 외벽 개선공사 안내에 대해서 제가 들어온 김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네 저희가 교사동 창호 교체 및 외벽 공사를 앞으로 시행하게 됐는데요.

교육청 시설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명은 옥터초 환경개선 공사로 발주가 나갔었고요.

공사 기간은 12월 15일부터 내년 6월 11일 화요일까지로 계약 체결이 이미 됐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공사 내용은 교사동 외부 창호 교체하고 교사동의 외벽 개선공사입니다.

그래서 출입 통제를 하게 됐는데요. 교사동 주변을 출입을 다 통제하면서 후문하고 주차장은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고요.

이제 마 번은 방학 기간 중에 창호 교체가 완료 예정이고 그래서 3월부터는 학생들이 교체된 창호가 있는 교실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외벽 공사는 2024년 6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서두르면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공사야 어떻게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더 늦어질 수 있고 현재 예정은 그렇게 돼 있고요.

밑에 통제 범위를 보시면 왼쪽에 빨간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본관동 부분인데 후문 외벽부터 시작해서 이쪽 앞에 구령대와 건물 사이 중간쯤까지 빨간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다 통제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펜스가 쳐지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온누리관 맞은편 쪽에 파란색으로 교사동 출입구라고 돼 있는 곳 그곳 한 곳만으로 아이들이 출입하고 교직원도 그 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학부모위원(김0화) : 그럼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이렇게 해서 쪽 가서 끝으로 들어가는 거죠.

-담당자(윤0아) : 네 여기 파란색 실선으로 정문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길 표시된 대로 이렇게 쪽 따라서 가게 됩니다.

-학부모위원(김0화) : 그러면 아침과 마찬가지로 하교할 때도 그런가요?

-담당자(윤0아) : 하교할 때도 그쪽 문을 이용해서 하교하고 여기 펜스가 쳐지기 때문에 펜스 쳐지는 안쪽은 이제 공사 지역이고요.

이 바깥쪽은 이제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학부모위원(김0화) : 혹시나 이게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 에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

는 건가요?

-담당자(윤O아) : 아침 같은 경우는 주차장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교직원들은 운동장에 주차하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 등교 시간을 피해서 조금 일찍 선생님들 오셔서 주차할 수 있게 하고요.

-학부모위원(신O정) : 근데 이게 아침에 여기 되게 복잡하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은 그럼 더 더욱 공사까지 들어가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게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서요. 솔직히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등하교에 따로 계시는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조금 지도를 해 주시는 건지 이제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하거든요.

-담당자(윤O아) : 지금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문이 등하교할 때 사회복무요원하고 그리고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행정실장까지 해서 조를 짜서 아침에 차와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할 계획이고요.

하교 시간에는 아직 딱히 큰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한번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원위원(박O진) : 내년엔 안전지킴이가 원래 2교대였잖아요. 3교대로 바뀐다고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3교대가 되면 오후 타임에도 안전지킴이분이 있으시면 그분이 일단은 학생들 나오는 현관까지는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위원(신O정) : 지금 여기 공간이 반 정도 막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운동장으로 분명히 애들이 갈 거란 말이죠. 지금도 운동장 여기 개수대 그쪽으로 가는 애들도 많고 여기 가운데 구령대로도 오는 애들 많은데 입구가 이쪽으로 바뀌면 분명히 운동장으로 많이 갈 거예요.

주차를 운동장 안에 하니까 걱정인데 아이들 등교 시간에 안전만 보장이 되면은 사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원위원(박O진) : 그래서 안내장이 오늘 이제 나갈 거고요.

알림장에도 썼는데 학생들이 지금 40분부터 등교잖아요.

근데 그전에 미리 오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40분에 좀 맞춰서 오라고 하고 교사들의 출근을 40분 이전에 해서 교문으로 차량 애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걸 좀 막으려고 합니다.

-학부모위원(신O정) : 오전에는 어차피 선생님도 계시고 교장 선생님도 한 분씩 나가시고 교감 선생님 한 분 나가시고 지킴이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오후에는 어차피 선생님들이 아이들 하교하고 퇴근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어느 정도는 괜찮아 오전에만 조금 조심한다면 오후에는 선생님들 애들 다 가고 나서 퇴근을

하시니까요.

-학부모위원(김O화) :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담임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려도 되나 아침저녁으로 아이들 등하교 시 부모님들이 차를 갖고 오시잖아요.

그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말씀들을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원위원(박O진) : 선생님들이 알림장에도 써드리고 있습니다.

-학부모위원(신O정) : 근데 제가 우산 갖다주려 점심시간에 학교 왔었는데 교문 입구에다 차 대놓고 계시더라고요.

-학부모위원(김O화) :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렇고 지금 여기 올 때도 어떤 분이 거기다 차 세워놓고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아저씨가

-학교장 : 원래 도로교통법상 거기에 저희가 이제 주정차 금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제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던 지점은 통학로가 없다 보니까 이쪽 도로에 통학로가 없어서 부모님들이 횡단보도 앞애다 차를 세우고 그 부분은 그냥 안전하게 내려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보니까 그와 관련된 게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학부모위원(김O화) : 학부모들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교문 앞이나 주정차 가능지역에 고깔 모양 깔때기라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차가 아예 그쪽으로 못 들어오도록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계속 알림장에도 써주시지만, 효과가 없으니까요.

-학교장 :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실제 이것 때문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학교가 있었어요.

1학기 때 13개 학교가 했고 많은 학교에서 시에다가 예산을 신청해서 별도의 주정차 구역을 만들었고 왜냐하면 학부모님은 내려줘야 되고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 신청하면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까지 측정하러 와요.

그쪽에서 근데 지금 그게 요구를 원하신다면 부모님들은 필요하다 머니까 데려다줘야 해서 별도의 도로교통법상 걸리지 않는 아이들 한시적으로 그 기간에 세울 수 있을 공간이 필요하다 하면 설문조사를 해서 그 구역을 신청해야 해요.

시청에서 경찰서하고 와서 그럼 어느 위치에 해야 할까 여기는 위치상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예산 주고 거기다가 설치를 해 줍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게 신청이 안 됐다고 하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청을 해야겠죠. 제가 아침 지도할 때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고 내리는 아이한테 얘기를 해야 해요. 여기는 안 된다.

부모님께 꼭 말씀드려라. 제가 지금 그 상황 파악을 못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로 들어와서 저는 오히려 안전하게 내려주고 가는 허용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아니네요.

-학부모위원(김○화) : 그게 왜냐면 이렇게 들어와서 내려주시는 분이 있고 거기다가 세우는 분이 있어요.

이 문짝에 박아서 갔던 아이도 있었고 왜냐면 내리다가 또 떨어져서 자기 애가 떨어졌는데 학교 앞에서 떨어졌다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부모위원(신○정) : 거기 횡단보도가 이쪽에 보면 노란색 기둥 그거를 이쪽 횡단보도로 나와야 하는데요. 찾길 쪽으로 건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차가 여기서 들어오고 애는 그 노란 기둥 횡단보도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 한번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모퉁이에 차나 트럭이 주정차하고 있는 경우도 한 번씩 가끔 있고 아예 통학로 막아놓고 그러니까 눈·비가 내릴 때 시야 확보가 어려운 날은 위험하니깐 펜스 같은 걸 설치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때기 같은 거라도 그렇게 해놔도 분명히 그 갈때기 옆에다 차를 세우시겠지만요.

-교원위원(박○진) : 사실 조금만 멀리 내려서 걸으면 될 일인데...

-학부모위원(김○화) : 안 될걸요. 그게 싫어서 이 앞까지 오시는 분들이라.

-학부모위원(신○정) : 그리고 만약에 농구장 쪽에 출입구가 만들어진다면 그쪽에 대놓고 거기는 바로 학교잖아요.

지금 농구장 쪽에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너서 유치원을 와서 또 학교 앞에서 또 건너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분명히 학교 앞에 내려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일단 그거 먼저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장 : 사실 보니까 속도위반 차량이나 그렇게 주정차 위반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시에다 얘기해서 공문 정식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보내서 이런저런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안전 위험이 있으므로 거기 설치를 해달라 요청을 하면 됩니다.

-학부모위원(김○화) : 제가 작년에 6번 신고했거든요. 여기는 횡단보도도 작아서 신호등도 더 길게 해 줄 수도 없다 그리고 그러면은 보도를 조금 어떻게 펜스를 더 넣어서 아이들이 조금 최대한 위험을 덜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시청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저희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고 경찰서랑 같이 연합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와서 보시고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봐달라 그랬더니 와서 그렇게 결론을 내시고 저한테 답을

주시더라고요.

-학교장 : 그러면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저희 공문 보내서 여기 협의회에 오시도록 해서 같이 보시고 논의하고 그때 학부모님 대표로 위원님들 좀 오셔서 같이 논의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위원(신○정) : 솔직히 여기 앞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횡단보도도 아이들이 서 있을 수 있는 보도블록 자체도 작아요.

아침에 보면 애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신호등 때문에 빨리 뛰어 가로질러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이 보도블록에서도 애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쳐도 바로 보도로 뛰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차는 파란불이 돼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 아이는 사고가 나고

-교원위원(박○진) : 신호랑 뭐 이렇게 그런 방지턱 같은 게 있어 사실상 여기 골목 초입은 불법 주정차가 많으니까 오히려 천천히 가요.

근데 여기는 도로가 딱 정리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밟거든요. 그러니까 트럭 되게 빨리 달리고 오토바이도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학부모위원(김○화) : 유치원 사거리도 저렇게 말 나오고 카메라도 그곳에만 설치되었는데 학교앞에도 설치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같이 후문 쪽에도 근데 후문은 안 하고 지금 정문에만 저렇게 해놓고 카메라도 아예 카메라 있어도 막 빨리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앞에서만 속도 확 줄이고 근데 그것조차 없으니까 여기 앞에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부모위원(신○정) : 여기는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관과 시청시청 담당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궁금한 거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장 : 그러면 위원님들 좀 참석해 주셔야 해요.

-부위원장 : 네. 계속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 다음으로 심의할 안건입니다. 심의안건번호 8번 2023학년도 유치원 졸업앨범 수익자부담금 징수계획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자(김○진) : 안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의사항)

-담당자(김○진) : 23년 유치원 졸업앨범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졸업앨범의 경우 5만 5천 원, 졸업 액자의 경우 3만 3천 원이고요.

현재 신청 인원은 졸업앨범은 3명 졸업 액자는 4명 신청 예정이어서 이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 심의 안전번호 8번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 이렇게 소수 인원으로 제작이 가능한 건가요?

-담당자(김O진) : 저희가 초등학교랑 같은 업체를 이용하고 있어서 다행히 업체에서 조금 배려를 해 주셔서 소수 인원인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 졸업앨범과 액자를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담당자(김O진) : 네 앨범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액자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개 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학교장 : 근데 졸업생은 한 명인데

-담당자(김O진) : 그런데도 이제 학부모님들 선택이셔서 원하시면 선택을 하셔서 앨범까지 구매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보통 수료생은 앨범은 안 하고 액자만 많이 선택하세요.

-학교장 : 수료생은 몇 명인가요?

-담당자(김O진) : 졸업생은 1명이고 나머지는 6명은 수료생이 졸업생이에요.

-학교장 : 그러면 졸업 액자가 아니라 그냥 수료 액자도 되는 거네요. 앨범도 수료생들도 앨범이 있는 거예요.

-담당자(김O진) : 저희 전체 인원을 다 사진을 다 찍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친구들만 구매를 하는 상황입니다. 학사모 사진도 찍고 인원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신청자만 모여서 사진을 찍기에는 이제 그림도 너무 예쁘게 안 나오기도 하고요.

-학교장 : 대부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 학사모를 쓰거나 전면에 개인 사진을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료생도 개인 사진으로 수료하는 그걸 놓는다는 건지 저는 앨범을 아직 한 번도 못 봐서

-담당자(김O진) : 앨범에 학사모 사진이 들어가고 액자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찍는 사진이 야외 프로필 사진 이랑 학사모 사진이랑 두 가지를 찍고 거기서 선택해서 액자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하시는 분들은 야외 프로필 사진 찍은 거 그거를 액자로 해서 많이 선택하세요.

-학교장 : 졸업앨범은 한 명만 한다는 거죠?

-담당자(김O진) : 네 앨범은 근데 지금 한 3명 정도 신

청하시겠다고 하셔서 다행히 앨범까지 같이 이번에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안전번호 8번 2023학년도 유치원 졸업앨범 수익자부담금 징수계획에 대한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 다음으로 심의할 안전입니다. 심의안전번호 9번 겨울방학 행복한 울타리 수익자부담금 징수 계획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자(김O진) : 안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의사항)

-담당자(김O진) : 저희 겨울방학 행복한 울타리 참여 유아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저희 배곧 유치원에서 1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36일간 행복한 울타리에 참여하는 유아가 신청을 받았는데 1명이어서 1명이 그 기간 동안 참여하게 될 것 같고요. 학비는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금액이어서 한 달에 교육과정은 10만 원, 방과 후 과정은 5만 원인데 이게 두 달치 금액이 이렇게 산정되었고요.

학부모 수익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는 지금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됐는데 그쪽에서 특성화 활동비는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정하지 않음이어서 하계 기준으로 12만 원을 작성해서 심의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 심의 안전번호 9번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 개인적으로 원해서 하는 건가요?

-담당자(김O진) : 네, 개인적으로 원하는 상황입니다.

-학교장 : 급식비가 지금 36일로 되어 있다면 배곧 유치원이 이제 중심 유치원인데 저희가 기간이 여기 심의 자료에는 없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담당자(김O진) : 1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입니다.

-학교장 : 특성화 활동비 12만 원도 이 기간 내에 사용하나요?

-담당자(김O진) : 네 사용하는 비용인데 이거는 그쪽 유치원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난 뒤에 결정된 금액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셔서 이거는 하계 기준으로 금액을 제가

작성해서 심의받았습니다.

-부위원장 :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안전번호 9번 겨울방학 행복한 울타리 수익자부담금 징수계획에 대한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 다음으로 긴급으로 상정된 심의안전번호 11번 2023 2학기 다문화 학생 꿈탄탄 방학특강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을 추가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안전번호 11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 위원님들 전체 동의해 주셔서 심의안전번호 11번 2023 2학기 다문화 학생 꿈탄탄 방학특강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자(원0영) : 안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의사항)

-담당자(원0영) : 2023년 2학기 다문화 학생 꿈탄탄 방학 특강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 공문이 내려와서 조금 급하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학기 여름방학 때와 동일하게 이번 2학기 겨울방학에도 꿈탄탄 방학 특강 프로그램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방학 중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맞춤형 수업 제공으로 학습 공백 해소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이 꼭 한 명 이상씩 들어가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무조건 다문화 학생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초학력이 좀 필요한 학생들도 포함하여서 한 프로그램당 최소 3명에서 최소 5명 정도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1월 22일 월요일부터 2월 2일 금요일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9시부터 11시 20분까지 학교 공사 기간이 있어서 급식실에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5명의 선생님께서 1~2학년 군 3~4학년 군, 5~6학년 군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게 되시고 4번의 운영 예산은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원래 21차시로 운영 예산을 짜서 이 계획서를 제출했었는

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조금 더 주셨어요.

그래서 5명의 선생님 중에서 2명의 선생님만 21차시가 아니라 24차시로 수업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분의 선생님은 21차시 수업 그리고 두 분의 선생님께서는 24차시 수업 이렇게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 심의 안전번호 11번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위원(신0정) : 다문화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학생 수준에 따라 보충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도 신청을 따로 받으시는거예요?

-담당자(원0영) : 네 가정통신문이 내일 나갈 예정입니다.

-학부모위원(김0화) : 종이로 나오나요?

-담당자(원0영) : 네, 종이로 나갑니다.

-학부모위원(김0화) : 이게 나중에 또 뒷말이 나오실 것 같아서 지금 여쭙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유처럼 저 아이엠스쿨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종이도 나오고

-교원위원(박0진) : 근데 사실상 저희가 아이엠스쿨을 도입한 게 종이가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종이를 안 쓰려고 한 건데 아이엠스쿨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림장에도 저희도 아이엠스쿨 차단된 경우 학교 전달 내용이나 신청 등 확인이 어려우니 차단하시면 안 된다고 써드리는데 그마저도 안 보시니 걱정입니다.

-학교장 :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문화 학생이 프로그램 자체는 일반 모든 학생의 참가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죠.

이제 실제로 진단 평가라든가 아니면 선별 검사라든가 또 아이들의 이제 부진 요소를 판단해서 신청서를 보내나요. 아니면 업체에 보내나요?

-담당자(원0영) :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으로 다 보냈어요.

-학교장 : 근데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아이들인데 내가 기초학력에 있는 애가 아닌데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위원들 : 그러면 안되지요.

-교원위원(노0래) :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론은 이 학생 기초학력에 대한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담당 선생님께서 그렇다고 누구만 지정해 주기 부담스럽고

-학부모위원(김0화) : 그것도 엄마들은 기분 나쁘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가 이 방과 후에 선생님 지금 아이들 보충 학습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두드림 이런 거 그것도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조금 보시고 아이를 선별해서 이제 개인별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나 봐요.

1학기 때 한 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받았니? 너는 안 받았니?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는 못 받았는데 왜 우리 애 공부 못하나 봐 담임 선생님이 직접 전화하고 애 나머지 공부하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작년에는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부모님들 하셔도 돼요.

해가 지고 저는 일부러 신청해서 아이가 했거든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선생님이 따로 취지가 있으셔서 그러실 거라고 그랬더니 지금 하시고 나서는 이제 좋아하시죠.

아이가 이제 발전하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지금 조금 뭐가 꼬이셨다고 그래야 하나

-교원위원(박○진) : 이거를 그냥 방학 중에 보낼 데 없어서 보내시는 식으로 악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학교장 : 주로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아프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아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프로그램 자체는 내가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의사 진단을 믿고 내가 아이의 수준을 높여서 되게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너 안 받았어! 나는 받았는데 기뻐해야 할 의약이에요.

왜냐면 담임 선생님이 챙기고 그와 관련된 걸 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낮게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 진단 서비스를 주겠다는 이런 의미라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는 저희가 반의 수업에 우리가 다 같이 교육력을 높이려면 왜 좋은 학교로 이사를 하겠어요. 모든 아이가 잘하는 데 가서 살고 싶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회를 좀 제공해주는 게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아이들이 다 신청해서 말길 데 없어서 보내게 되면 그건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게 좋고

-학부모위원(김○화) : 담임 선생님들하고 좀 협의가 돼서 그 반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 그렇게 해서 좀 추천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장 : 도움을 주면 나아질 것 같은 애한테 전화하거든요. 아예 못하는 애도 물론 있겠지만

-학부모위원(김○화) : 그런 식으로 해서 설문지를 보내 드리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학부모위원(신○정) :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전화를 받았구나하고 기분 나빠하는 부분은 극소수 그 극소수 때문에 정작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못 받을 거란 말이에요.

-학교장 : 격차만 심해지고 그 격차 때문에 우리 아이들 전체가 피해가 간다 말이에요.

-학부모위원(신○정) : 물론 선생님께 죄송한 일이에요.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이 조금 부족한 아이의 부모님께 전화해야 하므로 이거는 담임 선생님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거지만 전체 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교원위원(박○진) : 전화가 아니라 안내장을 그 학생들한테만 주면 돼요.

-교원위원(노○래) : 1학기 때 신청자가 과도하게 많았어요.

-담당자(원○영) : 신청자가 그래도 좀 있어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교원위원(노○래) : 추첨까지 해야 한다면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학교장 :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 목적이예요.

수준차가 너무 나면 선생님들 지도하는데도 힘들어요.

-담당자(원정영)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에 보면 이제 3번에 나 운영 방법 첫 번째 부분에 3번 주요 내용 나.의 운영 방법

거기 첫 번째 내용이 다문화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당 최소 3명에서 최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 5명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위원(노○래) :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 지금 공사로 인해서 이 5개 반이 지금 모두 급식실에서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사실은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학교장 : 요일을 정해서 만약에 구분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은 강의는 쪽 21시간인가 2차차차시는 하시지만 조금 만약에 대상자 아이들이 월수금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가능한가요? 너무 많으면 아예 선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잖아요.

우리 학교는 그런데 3명이다 보면 3명 외에도 5명이 초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글이라든가 이거를 고학년이 갈수록 점점 기초학력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한글도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혹시 딱 한 애만 집중적으로 아까 24차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담당자(원정영) : 네 한 명으로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 : 반드시 24차시가 아니라 강사님 대상으로 24시간을 하시면 기준이 강사 기준인 거죠?

-담당자(원정영) : 네

-학부모위원(신○정) : 그럼 만약에 수업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한 5명이 지금 모집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학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교원위원(노○래) : 저희가 5명 중에서 2명은 1~2학년 군 2명은 3~4학년 군 1명이 5~6학년 군 5~6학년 군이 좀 신청이 저조했다고 했었어요.

그럼 어쨌든 학년 군에서 1, 2, 3, 4학년 군은 학년 군당 10명 정도 아마 선생님이 5명이 최대니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반당 뭐 한 4명에서 3명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안전번호 11번 2023 2학기 다문화 학생 꿈탄탄 방학특강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p>선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의사봉 3타></p> <p>-부위원장 :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p>	<p>-부위원장 : 더 이상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7회 옥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의사봉 3타></p> <p>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p>
<p>출석위원(6 명) 당연직 위원 : 이O순 교장선생님 학부모 위원 : 신O정, 이O진, 김O화 교원 위원 : 박O진, 노O래</p> <p>기록자 간 사 : 박O정 (인)</p>	